

광주 FC, 전용구장서 새 출발... 팬과 호흡하며 새 역사 쓴다

월드컵 경기장 옆 1만석 규모
필드-관중석 사이 가변석 설치
선수들 숨소리까지 전달

25일 새 홈구장서 수원과 첫 경기
창단 10주년 기념 유니폼 착용
선수들, 개장 자축 승리 다짐

창단10주년을 맞은 광주FC가 25일 전용구장 시대를 연다.

광주가 25일 오후 8시 수원삼성과 2020 K리그 13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익숙한 광주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새로운 축구전용구장에서 펼쳐지는 첫 경기다.

광주의 새로운 안방이 될 광주축구전용구장은 아담한 1만석 규모의 경기장이다.

필드와 관중석 사이에 트랙이 있는 기존 월드컵경기장과 달리 새 경기장은 가변석을 설치해 거리감을 줄였다.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필드와 관중석이 가까워졌다. 팬들은 현장감 넘치는 응원 분위기를 통해 축구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전광판과 조명시설도 새로 설치해 팬들의 편의를 더했다. 한층 밝아진 조명을 통해 야간 경기에서도 선수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 고품질의 전광판을 통해서도 경기 장면과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수단에도 이번 전용구장 개장이 반갑다.

전용구장 내에 숙소와 라커룸, 트레이닝 시설 등 클럽하우스가 위치하면서 선수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다.

경기과 훈련 모두 한국에서 이뤄지면서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됐다.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훈련장 2면이 추가로 만들어졌고, 기존 월드컵경기장 내에서도 훈련이 가능한 만큼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관중석이 필드와 가까워지면서 선수들은 팬들의 응원을 안고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전용구장 개장 경기에서 선수들은 특별한 유니폼을 입고 뛴다. 창단 10주년을 맞아 제작한 특별한 유니폼을 착용해 역사적인 순간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광주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공모전과 팬투표 등을 거쳐 10주년 유니폼을 제작했다.

광주 선수들은 팬들의 참여로 탄생한 10주년 유니폼을 입고 새 구장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이번 경기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분수령이다. 광주는 지난 부산 원정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5경기 만에 승점을 더했다. 연패에서 벗어났지만 9위 광주(3승 2무 7패·승점 11)는 10위 수원(2승 4무 6패·승점 10점)에 1점 차 추격을 받고 있다.

새 출발선에 선 광주는 승리로 개장을 자축하겠다는 각오다.

광주 관계자는 "창단 10주년, K리그1 복귀와 함께 클럽하우스, 연습구장, 전용구장 등 각종 인프라까지 구축되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팬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새 경기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호날두, 3대 리그 50골 돌파

세리에A 30골... 득점 공동 선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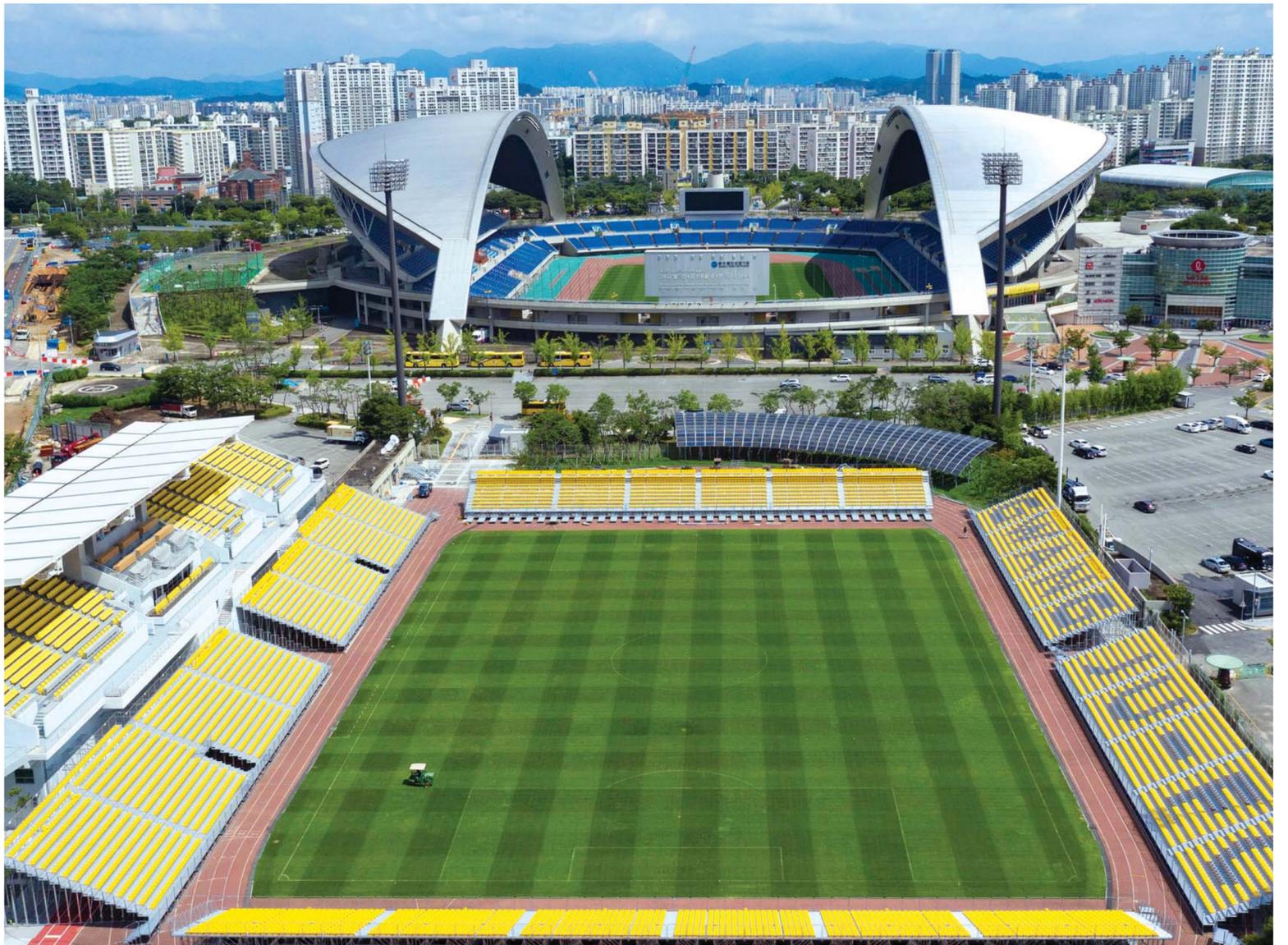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역대 처음으로 유럽 빅 3리그(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이탈리아 세리에A) 모두 '50골 돌파' 기록을 작성했다.

호날두는 21일 열린 라치오와 2019-2020 세리에A 34라운드 홈경기에서 혼자서 2골을 몰아치며 유벤투스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는 득점왕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호날두와 라치오의 골잡이 치로 임모빌레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고, 결과적으로 2골을 넣은 호날두가 1골을 작성한 임모빌레에게 판정승을 거뒀다.

2골을 보탠 호날두는 정규리그 30호 골을 작성, 이날 1골을 추가한 임모빌레(30골)와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관중석으로 더 가까이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광주축구전용구장이 25일 개장한다. 광주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보조구장에 가변석을 설치하는 형태로 신축된 경기장은 1만석 규모로 광주FC의 홈 구장으로 사용된다. 광주FC는 이날 오후 8시 수원삼성과 13라운드 홈경기를 갖고 전용구장 시대를 연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와인 가고 인삼주 오고... 윌리엄스의 신고식

KIA 감독, 각 팀 감독에 와인 선물하며 KBO 신고식

어제 한화전 앞 답례 받아... 이강철 수원왕갈비·손혁은 전통공예품 선물

KIA 타이거즈의 윌리엄스 감독이 이번에는 '인삼주'를 품에 안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21일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에 앞서 최원호 한화 감독대행에게서 인삼주를 선물 받았다.

2013년 금산 인삼대회에서 수상한 인삼으로 만든 금산 인삼주로, 앞선 광주 맞대결에서 최 감독대행에게 건넨 특별 와인에 대한 답례 선물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자신이 좋아하는 와인을 각 구단 감독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그냥 와인만 건네는 것은 아니다. 각 감독의 이름을 새긴 나무케이스에 와인을 담아 '감동'까지 선물하고 있다.

LG 트윈스 류중일 감독과의 자리가 계기가 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빅리그에서도 알아주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지만 KBO리그에서는 '초보 감독'이다.

지난 5월말 '초보 사령탑'은 KBO리그의 '베테랑 사령탑' 류중일 감독을 만났다. 광주 원정을 온 류중일 감독은 윌리엄스 감독을 찾아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 자리에서 KBO리그 감독들이 3연전 첫날 담소의 시간을 가지는 등 자주 소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냈다.

'초보 감독'은 KBO리그 신고식 차원에서 특별한 와인을 준비했다.

그리고 윌리엄스 감독은 6월 30일 광주 원정을 온 최 감독대행에게 가장 먼저 와인 선물을 건넸다.

다. 자연스레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각 구단 감독들도 답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KT 위즈 이강철 감독은 수원왕갈비를 선물했고, 키움 히어로즈의 손혁 감독은 전통 공예품과 소주국으로 답례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앞선 삼성 원정에서는 허삼영 감독에게 경북 정도 감 와인을 받았다.

지난 주말 광주를 찾은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은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소주를 들고 KIA 감독실을 찾았다. 지난해 우승을 하고 선물 받은 우승 기념주였다.

윌리엄스 감독은 '와인 투어'를 통해 새로운 리그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소소한 기쁨도 얻고 있다.

남아있는 와인은 세 병. 윌리엄스 감독은 '와인 투어' 아이디어를 제공한 류중일 감독을 비롯해 허문회 롯데 감독, 염경엽 SK 감독과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김광현, 불펜서 시작... MLB닷컴 "마무리 가능성"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이 미국프로 야구 메이저리그 첫 시즌을 구원 투수로 시작한다. 마무리 투수로 등판할 수도 있다.

MLB닷컴은 21일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세인트루이스 선발진에 합류했다"며 "김광현은 불펜에서 정규시즌을 시작한다. 마무리 투수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세인트루이스는 잭 플래허티, 애덤 웨인라이트, 다코타 허드슨, 마이클 마이클러스, 마르티네스 선발진을 꾸렸다.

김광현은 불펜 승리조에 합류해 라이언 헬슬리, 히오바니 가예고스 등과 마무리 자리를 놓고 경쟁

할 전망이다. 마르티네스와 5선발 자리를 놓고 다투던 김광현은 스프링캠프 기간에 열린 시범경기에서 4경기 8이닝 5피안타 무실점 11탈삼진으로 호투했다. 17일 정백전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속아내며 1피안타 2볼넷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를 했다.

그러나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마르티네스를 5선발로 택했다. 현재 세인트루이스에서 가장 최근에 마무리 자리에 섰던 투수는 마르티네스다.

그는 2015년 14승, 2016년 16승, 2017년 12승

을 거둔 불박이 선발 투수였다. 그러나 2018년 어깨 통증을 느껴 불펜으로 이동했고, 지난 시즌엔 마무리로 변신해 4승 2패 24세이브 평균자책점 3.17로 활약했다.

마르티네스는 선발로 돌아가길 원했고, 2020시즌에 5선발 자리를 꿰찼다.

김광현은 KBO리그 정규시즌에서는 세이브를 거둔 적이 없다. 선발 투수로 뛴 그는 가끔 '중간 계투'로 등판해 2홀드를 챙겼다. 그러나 한국시리즈에서는 2010년과 2018년, 시리즈를 끝내는 경기에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 팀 우승을 결정지었다. /연합뉴스

